

가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 의견	13

I. 일반개황

국명	가나(Ghana)	수도	아크라 (Accra)
면적	239천 km ² (한반도의 1.1배)	GDP	465억 달러 (2017 ^e)
인구	28.2 백만명 (2016년)	1인당 GDP	1,645 달러 (2017 ^e)
정치체제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edi (GHC)
대외정책	친서방중립	환율(달러당)	4.35 (2017 ^e)

- 아프리카 서부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가나는 한반도의 약 1.1배에 달하는 국토와 2,82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르키나파소(북), 토고(동), 코트디부아르(서)와 접경하고 있음.
- 세계 2위의 코코아 생산국이자 아프리카 2위의 금 생산국이며, 2010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하여 광물, 임산, 수산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임.
- 최근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경기부양 정책 추진 및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회복되고 있으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16년 선거에서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대통령과 제1야당인 신애국당(NPP)의 승리로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음. 대외적으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조·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서방국과 협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7.3	4.0	3.8	3.5	5.9	8.9
소비자물가상승률	11.7	15.5	17.2	17.5	11.8	9.0
재정수지 / GDP	-12.0	-10.9	-5.4	-8.9	-4.5	-3.8

자료: IMF

□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률 회복

- 가나 경제는 원유 생산 증가 및 통신·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고질적인 재정적자, 무역적자 등으로 2013년부터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음.
- 2016년에는 원유 생산 차질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3년 만에 최저치인 3.5%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7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완화, 세금 인하, 인프라 구축 등 경기부양 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5.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TEN (Tweneboa-Enyenra-Ntomme) 및 Sankofa 유전에서 신규 원유 생산, Jubilee 유전에서 원유 생산 재개가 경제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 IMF의 가나 경제성장률 전망치(%) : 6.6('18~'20)

- 한편, 농업 부문의 경우 코코아 가격 하락 및 생산 감소,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은행 산업 구조조정*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30개가 넘는 은행이 부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나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에 대한 최소자본금을 기존 1억 2,000만 세디에서 4억 세디로 상승시켰음(2018년 말까지 시행).

□ 재정개혁에 따른 재정적자 비중 축소

- 가나의 재정수지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 보조금 지급, 과중한 외채 부담 등으로 인해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2013년에는 저조한 세수와 2012년 말 대선을 계기로 인상된 공공부문 임금 등의 요인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12%까지 확대되었음. 이에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법 개정 등 재정수입 확대에 주력하여 적자 규모가 2015년 GDP의 5.4%까지 감소하였음.
- 2016년에는 원유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GDP의 8.9%로 다시 확대되었음. IMF의 지속적인 재정개혁 요구에 가나 정부가 부응한 결과 2017년 재정적자는 GDP의 4.5%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는 3.9%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 기록 추정

- 가나는 환율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전기·수도·가스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의 누적 효과로 2015~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17.2%, 17.5%를 기록하였음.
- 2017년에도 통화정책 완화* 및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인 11.8%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는 비식료품 부문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폭 하락한 9.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가나 중앙은행(Bank of Ghana) 기준금리 인하 추이 : 25.5% → 23.5%(‘17.3.20) → 22.5%(‘17.5.22) → 21.0%(‘17.7.24) → 20.0%(‘17.11.27) → 18.0%(‘18.3.23)

2. 국제 경제

<표 2>

주요 국제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수 지	-5,704	-3,695	-2,824	-2,832	-2,127	-1,948
경상수지/GDP	-12.1	-9.4	-7.7	-6.6	-4.6	-5.4
상 품 수 지	-4,011	-1,383	-3,144	-1,773	1,068	917
수 출	13,752	13,217	10,321	11,137	13,752	14,619
수 입	17,763	14,600	13,465	12,910	12,684	13,702
외 환 보 유 액	4,587	4,349	4,403	4,862	6,452 ^{주)}	-
총 외 채 잔 액	15,801	17,612	19,109	19,959	20,852	21,409
총외채잔액/GDP	33.5	44.9	51.8	46.7	44.8	41.7
D. S. R.	9.7	15.6	16.7	19.5	20.0	17.1

주: 2017년 6월말 기준

자료: IMF, EIU, OECD.

가. 대외거래

□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 지속적으로 감소

- 가나의 주력 수출상품은 금과 코코아였으나, 2011년부터 원유 수출이 본격화되었음*. 2015~16년 유전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원유 수출액 증가율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향후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원유가 가나의 최대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기준 수출비중 : 금 42%, 코코아 18%, 원유 13%

** Jubilee 유전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의 터렛 베어링(turret bearing) 문제

- 터렛 베어링 : FPSO의 선단부에 위치하여 시추장치 회전축, 원유 필터 및 정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FPSO 전체 가격의 최대 20%를 점유.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상품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출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출상품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향후 경상수지 적자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IMF의 가나 경상수지/GDP 전망치(%) : -5.4('18^f) → -5.0('19) → -4.7('20^f)

□ 경기회복 지연으로 환율 상승세 지속 전망

- 달러당 세디화 환율은 재정적자 확대 우려 및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2015년 IMF 구제금융(약 9억 달러) 및 세계은행(1.5억 달러)의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7월에는 4.3세디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 환율 추이(연중평균, 달러당 세디) : 1.98('13) → 2.89('14) → 3.79('15)

- 2016년에도 환율 상승이 지속되었으며, 2017년 세디 환율은 달러당 4.6세디를 상회하기도 하였음. 2018년에는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평가 절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로 외환보유액은 증가세 유지

- 원유 수출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최근 4년 간 계속 증가하여 2017년 6월말 기준 6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증가세는 대외충격에 대비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음.

나. 외채상환능력

□ GDP 대비 총외채잔액 기준 외채상환부담 큰 편

- 총외채규모가 2004년 GDP 대비 80%에 육박하였으나, 2004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의 Completion Point(채무탕감 자격 부여 단계)를 달성하고 2006년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프로그램에 의해 대규모 채무탕감(22억 달러*)을 받은 바 있음.

* IDA 7.8억 달러, IMF 1.1억 달러, AfDB 1.3억 달러, 파리클럽 8.3억 달러 등

- 2006년 이후 외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44.8%를 기록하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외채상환부담은 비교적 큰 편임.

* 나이지리아 13.1%, 탄자니아 34.5%, 앙골라 36.7%, 케냐 42.5% 등

-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6.6%로, 중장기 외채비중이 높아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

3.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제조업 기반 취약

- 산업별 GDP 구성비율이 서비스업 59%, 농업 16%인 반면, 제조업은 25% 수준에 불과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등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광물자원이 총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금 수출이 90%를 차지하는 등* 1차 상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 금 시세 등에 따라 국가경제가 크게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16년 기준 수출비중 : 금 42%, 코코아 18%, 원유 13%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가나는 1957년 독립 당시만 해도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 도로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였으나, 1970년대부터 도로, 철도, 통신 시스템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프라가 낙후되면서 도로 교통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는 등 인프라 운용의 비효율성이 지속되어 왔음.
- 신임 정부는 철도망 건설, 국적 항공사 운항 재개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으나, 제한된 자금과 부족한 전문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가나 철도부는 2017년 12월 가나 철도 종합 계획(Ghana Railway Master Plan)을 수립하여 4,007.6km의 새로운 철도망 건설을 제안했음.

- 2016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 따르면 가나는 전체 188국 중 139위에 그쳤으며, 보건, 교육 등 사회 환경 전반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나. 성장 잠재력

□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유·가스 생산 증가

- 2007년 영국의 석유회사인 Tullow Oil이 가나의 주빌리(Jubilee) 해역에서 해상 유전(확인매장량 20억 배럴)을 발견하였으며, 201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하였음(2016년말까지 생산량 1.9억 배럴).

- 주빌리 유전은 2016년 FPSO의 기술적 문제*로 산유량(7만 배럴/일)이 전년(10만 배럴/일) 대비 감소함.

*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의 터렛 베어링(turret bearing) 문제
 - 터렛 베어링 : FPSO의 선단부에 위치하여 시추장치 회전축, 원유 필터 및 정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FPSO 전체 가격의 최대 20%를 점유.

- TEN(Tweneboa-Enyenra-Ntomme) 유전*과 Sankofa 유전**의 원유 생산 개시로 앞으로 가나의 원유·가스 생산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분간 가나의 경제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 2016년 8월 생산 시작, 확인매장량 2억 3,900만 배럴
 ** 2017년 3분기 생산 시작, 확인매장량 1억 7,300만 배럴



- 가나는 2016년 가스 마스터플랜(Gas Master Plan: GMP)*과 Reverse Flow 정책**을 발표했으며, 2017년에는 198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원유 수익 관리, 원유 탐사 및 생산 관련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원유·가스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가나 천연가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개발

** 가나 가스 전송시스템과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상호 연결 추진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가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제 2의 금 생산국임*. 금 생산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6대 Belt 지역(Asanti, Sefwi, Kibi-Wineba, Bui, Bole, Wa-Lawra)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 기준 약 90톤 생산 (남아공 약 140톤)

-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망간 등의 매장량도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채굴작업이 최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음.

□ 서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기업환경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가나의 기업경영여건은 조사대상국 190개 국 중 120위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표 3> 서아프리카 주요국 기업경영여건(2018) 비교

순위(/190)	가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나이지리아
분야				
종합순위	120	139	140	145
창업	110	44	63	130
건축인허가	131	152	145	147
전력수급	136	129	118	172
재산등록	119	113	121	179
신용획득	55	142	142	6
투자자보호	96	146	138	33
조세납부	116	175	178	171
대외무역	158	155	135	183
계약실행	116	101	142	96
사업폐쇄	158	77	91	145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다. 정책성과

□ IMF의 지원 아래 구조조정 추진

- 가나는 2003년 IMF와 3개년 PRGF* 원조협정(2.6억 달러 규모)을 체결하고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은행 등 공공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IMF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2009년에는 3개년 PRGF 원조협정(6억 달러 규모)을 새로이 체결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음.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 그러나 인플레이션 상승 및 자국화폐 평가 절하, 높은 재정적자 수준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가나 정부는 2015년 4월 IMF의 확장차관제도 (Extended Credit Facility: ECF) 금융지원 승인(9억 1,800만 달러 규모)을 받게 됨.
- IMF는 재정 확보가 우선적인 재정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나의 경우 재정지출 축소에 집중되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말 만기가 도래하는 ECF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못하고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 1지구 1공장 정책 시행

- 신정부는 2017년 8월부터 가나의 216개 행정구역에 최소한 1개의 공업 단지 또는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는 1지구 1공장(One District, One Factory) 정책을 시행하였음.
- 이를 통해 가나 정부는 원자재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더 높은 방향으로 변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업률 감소 및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있음.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 불안 완화

- 1957년 113년 간의 영국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1981년 롤링스(Rawlings) 정권 출범까지 수많은 쿠데타(5회)와 정권교체(9회)를 겪는 등 정치적 혼란을 거듭해왔음.
- 2000년 대선에서 신애국당(New Patriotic Party: NPP)의 쿠푸어(Kufuor) 대통령이 국민민주회의(National Democratic Congress: NDC)의 밀스(Mills)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민주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음.
 - 쿠푸어 대통령은 2004년에도 재선되어 8년 간 안정적 통치체제를 유지 하였으나, 헌법의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에 따라 2008년 12월 퇴임하였음.

□ 신정부 아래 경제 부흥과 사회복지 중심의 정책

- 2016년 12월 대선에서 제1야당인 NPP의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가 총 득표율 53.85%로 당선되었으며, 총선에서도 NPP가 총 275석 중 171석을 차지하였음(NDC 104석).
 - * 가나 의회 의원, 법무장관, 외무장관을 역임한 바 있음.
-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A Change to Move Ghana Forward’ 구호 아래 경제 부흥과 사회복지 중심의 공약 및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 특히 경제 우선순위는 안정성 회복, 세금 감소, 금리 인하*, 민간 분야가 주도하는 두 자릿수 경제성장이라고 밝혔음.
 - * 2018년 3월 기준금리 18%

□ 부정부패 척결 수사 실시

- 신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Martin Amidu)를 임명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 국제투명성기구가 2017년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가나는 180개국 중 81위를 차지하여 아프리카 국가 중 르완다(48위), 나미비아(53위), 세네갈(66위) 등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함.
- o 그러나 금 등의 불법 채굴이 만연하고 있으며, 중국인 불법 채굴 노동자가 증가하고 관료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부정부패 척결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부족 간의 마찰 등 사회불안 요인 잠재

- o 2016년 12월 대선 직후 선관위의 개표 결과 지연에 따른 여·야 정당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별다른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음.
- o 신임 정부는 가나 내 불법광산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불법 광산 개발 현장을 단속해 굴착기를 압수하는 등의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 o 부족 간 마찰은 내란이나 전쟁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일부 지역에서 이따금 발생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불안 요인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국제관계

□ 서방 국가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

- o 롤링스 대통령 집권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조·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국과 적극 협력해 왔음.
- EU와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나의 EU 시장 수출에 대해 관세 및 쿼터가 폐지될 것으로 보임. 또한, EU는 2018년 2월 가나의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 기후변화 대책 등의 국가재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500만 유로의 기금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함.

- 최근에는 인프라 건설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대외 관계의 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최대 전자재업체인 중국건축재료그룹(CNBM*)은 2017년 가나의 1지구 1공장 정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은 40억 달러 추가 투자에 대해 논의 중임.
 - *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s and Equipment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
 - 또한 가나 정부는 2017년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 시노하이드로(Sinohydro)와 40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시노하이드로는 푸와루구(Pwalugu) 다목적 수력발전소, 아크라 홍수 예방 프로젝트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임.
 - 한편, 가나 정부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중국인의 불법 노동행위와 이로 인한 가나인들의 반중 정서 고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역내 외교적 영향력 유지

- 가나는 마하마(Mahama) 전 대통령이 2014~15년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의 의장을 역임 하는 등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1975년 아프리카 국가간 경제통합과 지역연합, 역내 공동번영 및 지역안정을 목표로 설립
- 주변국인 토고, 베냉, 코트디부아르 등과의 정치·경제 교류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쿠푸어(Kufuor) 전 대통령이 2007~08년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AU)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AU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왔음.
- 한편, 아프리카 서부의 상아 해안(Ivory Coast)에서 TEN(Tweneboa-Enyenra-Ntomme) 유전이 발견되면서 코트디부아르와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2017년 9월 해양경계획정 판결을 내리고 가나가 승소하면서 양국 간의 오래된 논쟁을 종식시켰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의 금융지원액을 일부 연체 중

- 2017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들로부터의 금융지원액 34억 달러 (단기 1억 달러, 중장기 33억 달러) 중 8.1백만 달러(전체의 0.2%)를 연체 중임.

2. 국제시장평가

OECD,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기존 등급 유지

- 높은 재정적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 증가 전망 및 IMF 구제금융 하에 재정개혁 실시 등을 반영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함.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7. 10)	6등급 (2016. 10)
Moody's	B3 (2018. 2)	B3 (2017. 9)
Fitch	B (2017. 9)	B (2017. 5)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77. 11. 14 수교 (북한과는 1964. 12. 28 수교)
- 주요 협정: 문화협정('87), 경제기술무역협정('90),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03)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7년말 누적 기준 129백만 달러(154건)
- 교역규모

<표 5> 한·가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220	253	215	244	자동차, 합성수지, 석유제품
수 입	38	40	31	38	산식물, 건전지및축전지, 연제품
교역규모	258	293	246	282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가나는 최근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경기부양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5.9%를 기록하여 전년(3.5%) 대비 개선되었음.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유전에서 원유 생산 및 Jubilee 유전의 원유 생산 재개가 경제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는 2016년 GDP의 8.9%로 확대되었으나 IMF의 지속적인 재정개혁 요구에 따라 2017년 GDP의 4.5%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주력 수출상품인 코코아, 금, 원유의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2017년 GDP의 4.6%).
- 2016년 선거에서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대통령과 제1야당인 신애국당(NPP)의 승리로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신정부는 경제 부흥과 사회복지 중심의 공약 및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조·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서방국과 협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한 협력을 강화 하면서 대외관계의 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6년 이후 외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44.8%를 기록하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외채상환부담은 큰 편이나, 중장기 외채비중이 높아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
-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가나의 국별신용도 등급을 D2 등급으로 부여코자 함.

조사역 이세린 (☎02-6255-5717)

E-mail: srlee@koreaexim.go.kr